

박항서의 베트남 ★ 꿈은 이루어졌다



15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우승한 베트남 선수들이 박항서 감독을 행가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레이에 합계 3-2 승 '동남아 월드컵' 스즈키컵 10년만에 우승 U-23 준우승·AG 4강 이어 베트남 축구 '매직 퍼레이드' 완성

‘박항서 매직’이 베트남 축구에 10년 만의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을 선물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15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1-0으로 이겼다. 원정으로 치른 결승 1차전에서 2-2로 비긴 베트남은 1, 2차전 합계 3-2로 말레이

시아를 물리치고 4만여 홈 팬들 앞에서 대망의 우승컵을 품에 안으면서 우승상금 30만 달러(약 3억4000만원)를 챙겼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3승 1무를 거둔 베트남은 준결승 1, 2차전에서 필리핀에 2승(2-1승·2-1승)을 거둔 뒤 결승 1, 2차전에서 1승 1무를 기록, 8경기 연속 무패(6승2무)를 질주하며 ‘무패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다.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이 우승한 것은 2008년 대회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우승으로 베트남은 역대 스즈키컵에서 2차례 우승(2008·2018년), 1차례 준우승(1998년), 2차례 3위(1996년·2002년)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박 감독은 베트남을 지휘하면서 지난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

피언십 역대 첫 준우승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역대 첫 4강 진출에 이어 10년 만의 스즈키컵 우승까지 베트남의 축구 역사를 새롭게 작성하며 ‘매직 퍼레이드’를 완성했다.

베트남은 결승 2차전 승리로 A매치 무패 행진을 16경기(9승7무)로 늘렸다. 이는 현재 A매치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기록이다.

수비와 역습을 강조한 3-4-3 전술을 내세운 베트남은 전반 6분 만에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으로 돌파한 응우옌 팡하이로 크로스를 ‘만행’ 응우옌 안득이 페널티지역 장면에서 기막힌 왼발 발리슛으로 말레이시아의 골키퍼를 흔들었다.

일찍잡지 골맛을 본 베트남은 전반 10분 문전에서 말레이시아의 무함마드 수마레가 시도한 힐킥이 왼쪽 골대를 살짝 빗나가면서 한숨을 돌렸다.

전반 44분에는 공격에 가담한 말레이시아의 수비수 사미 사파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시도한 오른발 슈트도 베트남 골대 오른쪽 구석을 향했지만 골키퍼 당반람의 슈퍼세이브에 막혔다.

베트남은 후반 시작과 함께 세트피스에 강한 말레이시아의 공세를 골키퍼의 잇따른 선방으로 위기를 넘겼다.

후반 5분 코너킥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공격수 수마레의 문전 헤딩슛을 골키퍼 당반람이 가까스로 막아냈다. 또 후반 8분 페

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내준 프리킥 상황에서도 말레이시아의 ‘전문 키커’ 사파워 라시드의 킥을 당반람이 편직으로 밀어냈다.

말레이시아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낸 베트남은 후반 26분 공격수 판반득을 빼고 수비수 응우옌 풍홍두이를 투입하며 ‘선수비 후역수’ 전술로 득점 지키기에 나섰다.

그리고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의 마지막 공세를 투혼으로 막아내며 1골차 승리를 지켜내고 스즈키컵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경기가 끝난 뒤 결승골의 도움을 기록한 베트남의 공격수 응우옌 팡하이는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돼 1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팡하이는 이번 대회에서 3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우승 트로피 가장 먼저 베트남 국민에 드리고 싶다 베트남 국민들이 한국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항서 감독 우승 인터뷰

“축구 지도자라는 조그마한 역할이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베트남 축구에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며 ‘박항서 매직’을 완성한 박항서(59)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우승의 원동력을 베트남 국민의 열성적인 응원으로 돌렸다.

박 감독은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결승 2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1-0으로 물리치면서 1, 2차전 합계 3-2로 우승을 확정짓던 ‘베트남 국민에게 우승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사랑해주신 만큼 베트남 국

민들께서 대한민국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항서 감독과 일문일답.

-우승 소감은.

▲우승해서 너무 기쁘다. 두 달 이상 나와 우리 선수들, 코칭스태프들이 우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왔다. 우승하기까지 노력을 다한 선수, 코칭스태프,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나와 선수들, 코칭스태프들은 베트남 국민의 많은 사랑과 격려를 받았다. 우승의 영광을 베트남 국민에게 돌린다. 또 감독 개인에게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나를 사랑해주신 만큼 베트남 국민들께서 대한민국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승 트로피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선물하고 싶다.

▲베트남 국민들께 제일 먼저 드리고 싶

다.

-결승골을 터트린 응우옌 안득을 평가한다면.

▲안득에게 정말 감사한다. 골은 안득이 넣었지만 그 골에는 우리 대표팀 23명 전체의 힘이 담겼다고 생각한다. 정말 멋진 골이었다.

-한국에서도 시청률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줬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18 AFF 스즈키컵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축구 지도자라는 조그마한 역할이 조국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베트남에서 생활은 어떤가.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일하고 있다. 선수들과 생활할 때가 가장 즐겁다. 오늘 일은 내 지도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기성용 5경기 연속 선발 … 뉴캐슬 1-0 승리 기여

손흥민 후반 교체 출전 토트넘, 번리에 1-0 승리

손흥민(토트넘)이 후반 막바지 교체 투입돼 하위권 팀을 상대로 어렵게 승점 3을 따내는 데 기여했다.

손흥민은 16일 열린 번리와 2018-2019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올리버 스콧 대신 그라운드를 밟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에서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고, 12일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도 선발로 뛰던 이후 이날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토트넘은 번리에 1-0 신승을 거두고 3연승으로 3위(승점 39)를 달렸다.

전반전 소득 없는 공세를 펼친 토트넘은 교체 멤버들이 활발한 움직임 보이면서 토트넘은 막바지 파상공세에 나섰다. 후반 35분 오른쪽 측면에서 넘어온 공을 요렌테가 가슴으로 손흥민 쪽으로 연

결했고, 골 지역 오른쪽 손흥민이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오른발 슈트 수비 발에 걸리고 말았다.

후반 44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반대편 알리를 보고 절묘한 패스를 보냈지만, 알리의 발에 걸리지 않으면서 득점 기회로 이어지지 못했다.

무승부 기색이 짙어지던 후반 추가시간 결국 교체 선수인 에릭센이 골갈증을 풀어냈다.

하프라인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가 델리알리, 케인을 거쳐 에릭센에게 연결됐고, 골 지역 왼쪽에서 에릭센은 오른발 슈트를 꽂아 넣었다.

뉴캐슬의 기성용은 허더즈필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서 후반 27분까지 뛰며 1-0 승리에 이바지했다.

기성용은 이전 리그 5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한 데 이어 이날도 선발로 낙점돼 팀의 신임을 재확인했다. 뉴캐슬은 후반 10분 살로몬 룬돈의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